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 조절과 자살 생각의 관계*

김 보 미

을지대학병원

유 성 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인관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관련기관에서 보호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살생각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을 사회적 유대감과 정서조절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지방소재 성폭력 관련기관과 웹터에서 성폭력, 가정 폭력 등의 대인관계 외상사건을 경험한 8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외상사건의 유형과 경험빈도, 자살생각, 사회적 유대감의 두 가지 변인인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 정서조절의 두 가지 변인인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짐이 되는 느낌, 좌절된 소속감과 같은 사회적 유대감의 상실감과 관련된 자기 지각이 이들의 현재 자살생각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고,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중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인 파국화, 충동성의 한 영역인 부정적 긴급성이 이들의 현재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변인 중 좌절된 소속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은 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의 과거 자살 생각력과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외상사건 경험자들의 자살위험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살 생각, 외상 사건, 소속감, 짐이 되는 느낌, 인지적 정서 조절, 충동성

* 본 논문은 충북대학교 신진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연구의 일부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유성은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 Tel : 043-261-3612 / Fax : 043-269-2188 / E-mail : syou@chungbuk.ac.kr

자살 행동은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Nock et al., 2008). 국내에서 실시된 대규모 역학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15-16%는 평생 한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며 3.3%는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고 3.2%는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Jeon et al., 2011).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은 생물학적 요인에서부터 환경적, 심리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Nock et al., 2008). 선행연구들은 자살행동과 관련 있는 환경적 변인으로 스트레스 사건 또는 외상사건의 경험을 일관적으로 지지한다(Dube et al., 2001; Foster, 2011; Molnar, Berkman, & Buka, 2001; Sorsdahl, Stein, Williams, & Nock, 2011; Stein et al., 2010). 급성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운 반면,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른 고위험군의 선별과 이들의 자살위험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이해는 예방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유용성이 높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1994)에 의하면 외상 사건이란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외상사건은 가해요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사람에 의한 외상의 예를 살펴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전쟁, 범죄 피해 등이 있고, 자연에 의한 외상의 예로는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이 있다(최은영, 안현의, 2011; Allen, 2005). 성폭력,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과 같이

사람에 의해 발생한 대인관계 외상사건은 다른 유형의 외상 사건에 비해 피해를 당한 개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Allen, 1995; Friedman, Resick, & Keane, 2007).

세계보건기구(WHO)가 2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 다양한 외상 사건의 경험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와 관련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성폭력, 신체적 폭력 사건과 같은 대인관계 외상사건이 자살 행동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ein et al., 2010). Dube와 동료(2001)들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성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 시도를 할 위험이 2배에서 5배 높음을 보고하였고, 다른 연구들에서도 아동기 외상 경험은 자살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우울, PTSD와 같은 정신 장애 위험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Affifi et al., 2008; Molnar, Berkman, & Buka, 2001).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와 같은 외상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rtin et al., 2004) 자살 위험은 전쟁을 경험한 군인들(Kang & Bullman, 2008; Miller et al., 2009), 자연 재해(Krug et al., 1998)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범죄 중에서 성폭력 범죄 비율은 1999년 18.9%에서 2008년 33.4%로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 가족부(2010)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1년간 65세 미만 부부의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 6쌍 중 1쌍이 1년에 한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성폭력, 가정 폭력과 같이 자살 위험과 관련 있는 외상사건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외상사건 경험자들의 자살위험과 관련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자살 생각은 자살과 자살 행동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기 때문에(Brown, Beck, Steer, & Grisham, 2000; Prinstein et al., 2008) 자살 생각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자살예방을 위한 임상적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자살의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Joiner, 2005; Van Orden, Witte, Cukrowicz, Selby & Joiner, 2010)에서는 한 개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첫째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고 둘째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으로 이는 자살로 죽을 수 있을 만큼 자신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을 경험할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여기에서 좌절된 소속감이란 자신이 가족 구성원, 친구들 또는 다른 가치 있는 집단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고, 짐이 되는 느낌은 친구, 가족 혹은 사회에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되어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님을 경험하는 것이다(Joiner, 2005).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의 상실은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는 주요 자살 이론가들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hneidman(1998)은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게서 나타나는 좌절된 욕구 중 하나로 소속감의 욕구를 제안 하였는데,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소속감이 좌절되었을 때 개인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자신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통제력 손상이 자살 위험을 증가 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Baumeister와 Leary(1995)도 소속의 욕구가 충족 되지 않았을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의 주장 역시 사회적 유대감의 상실 및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자살생각을 유발한다고 본 것이다.

미국의 대학생과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이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Joiner et al., 2009; Van Orden, Lynam, Hollar, & Joiner, 2006; Van Orden, Witte, Gordon, Bender, & Joiner, 2008). 또한, 좌절된 소속감은 알코올 관련 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환자들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과거력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고(You, Van Orden, & Conner, 2011), 짐이 되는 느낌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외래 환자들의 자살생각 (Van Orden, Lynam, Hollar, & Joiner, 2006)과 노인들의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Cukrowicz, Cheavens, Van Orden, Ragain, & Cook, 2011). 국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하정미, 설연옥, 좌문경, 2010)와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민호, 2010)에서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조민호 (2010)의 연구에서는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으나 절망감을 매개로 할 때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짐이 되는 느

킴은 절망감을 매개할 때와 매개하지 않을 때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에서 제안하는 좌절된 소속감이나 짐이 되는 느낌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은 자살 생각과 관련 있는 자기 지각, 즉 인지의 내용(cognitive content)이라고 할 수 있다(Slee, Garnefski, Spinhoven, & Arensman, 2008). 이와 같이 자살과 관련된 자기 지각이나 믿음과 더불어 이를 처리하는 인지적 과정과 관련된 변인들이나 정서조절양식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Anestis와 Joiner(2011)는 좌절된 소속감, 짐이 되는 느낌과 같이 대인관계에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변인들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가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정서조절양식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부정적 긴급성, 즉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살 의도가 없는 자기 손상(Chapman, Gratz, & Brown, 2006), 폭식 행동(Wegner et al., 2002)과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과 자살관련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정서조절의 다양한 영역 중 충동성이라는 하나의 측면만을 살펴 보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정서조절은 다차원적인 심리학적 개념으로서 행동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등과 같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략들이 제시되었다(Garnefski, 2001). Slee, Garnefski, Spinhoven과 Aresman(2008)은 고의적 자해 경험이 있는 집단은 고의적 자해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짐이 되는 느낌,

자기비난,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적인 인지의 내용뿐 아니라 정서반응에 대한 비수용과 회피와 같은 인지적 정서조절의 어려움, 충동성과 같은 행동적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대인관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쉽거나 관련 기관에서 치료 또는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살 생각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들을 알아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살의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유대감의 상실과 관련된 자기 지각인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 부적응적인 인지적, 행동적 정서조절 양식이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현재 자살 생각 수준과 평생 자살 생각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위에 제시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설정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유대감의 상실-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은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현재 자살 생각 수준과 평생 자살 생각 여부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둘째,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반추, 파국화, 자기비난, 타인비난-은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현재 자살 생각 수준과 평생 자살 생각 여부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으로서 충동성-미리 계획하지 않는 경향성과 긴급한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이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현재 자살 생각 수준과 평생 자살 생각 여부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충남, 충북지역에 소재한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센터와 쉼터에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성폭력, 신체폭력, 가정폭력 등의 대인관계 외상 사건 경험 후 쉼터에 거주하거나 심리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85명은 여자 59명, 남자 23명, 성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3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전체 평균연령은 27.8세(SD= 13.1)였고 연령 범위는 12세부터 59세까지 다양 하였다.

측정도구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Revised: INQ-R)는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의 두 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Van Orden, Cukrowicz, Witte, & Joiner, 2012). 초기의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Van Orden, Witte, & Gordon, 2008), Van Orden과 동료들(2012)이 좌절된 소속감 6문항, 짐이 되는 느낌 9문항의 총 15문항으로 수정하여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민호(2010)가 Van Orden 등(2008)의 3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최근 15문항 개정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각 문항을 읽고 최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느낀 것들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7점 Likert척도로(0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자주 그렇다) 평가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감이 좌절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판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좌절된 소속감 .85, 짐이 되는 느낌 .89였고(Van Orde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91로 나타났다.

단축형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와 Kraaij(2006)가 개발한 단축형 인지적 정서조절방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short)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인지적 정서조절방략 질문지는 Garnefski(2001)가 개발한 36문항의 인지적 정서조절방략 질문지를 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8문항으로 단축한 것이다.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거의 항상 그렇다)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소희(2004)가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 방략 질문지(Garnefski, 2001)를 단축형(Garnefski & Kraaij, 2006)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시 적응적인 방략과 부적응적인 방략의 두 가지 상위 요인으로 나뉜다. 적응적인 방략은 수용,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재평가, 긍정적 초점변경 등을 포함하고, 부적응적인 방략은 반추 혹은 사고에 초점두기,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인 방략의 네 가지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개별 요인들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자기비난 .62, 반추

.44, 파괴화 .76, 타인비난 .83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

충동적인 행동양식 측정을 위해 Whiteside와 Lynam(2001)이 개발한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The Urgency, (lack of) Premeditation, (lack of) Perseverance, Sensation Seeking Impulsive Behavior Scale; UPPS)의 일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는 충동적인 행동양식 및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부정적 긴급성, 미리 숙고하기(의 부족), 인내심(부족), 감각추구 등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리 숙고하기(의 부족) 11문항과 부정적 긴급성 12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미리 숙고하기(의 부족)은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긴급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Whiteside와 Lynam(2001)이 보고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미리 숙고하기 .91, 부정적 긴급성 .86였고, 본 연구에서는 미리 숙고하기 .87, 긴급성 .87로 나타났다.

한국판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 Foa, Cashman, Jaycox, & Perry, 1997)는 외상 사건 경험의 유형과 빈도, 증상 등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척도로 국내에서 남보라, 권호인, 권정혜(2010)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보라 등(2010)의 한국판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의 제 1장만을 실시하여 외상 사건의 빈도와 유형을 측정하였다.

자살 생각의 측정

자살 생각은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

살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현재 자살생각 수준의 두 가지를 측정하였다. 평생 자살 생각 유무는 미국의 대규모 역학조사(Kessler, Borges, & Walters, 1999)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질문지 형식으로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예’라고 답한 경우, 가장 최근에 한 자살생각의 시기와 전문가 상담 유무를 묻는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현재 자살생각의 수준은 한국판 Beck 우울 척도(김명식, 이임순, 이창선, 2007)의 9번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은 0-4점 척도로 나는 자살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다(0점), 나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나 실제로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1점), 나는 자살하고 싶다(2점),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할 것이다(3점)의 순으로 지난 2주 동안의 자살생각 수준을 측정한다.

자료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상경험자들의 좌절된 소속감, 짐이 되는 느낌, 인지적 정서 조절방략, 충동성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이 평생 자살생각 유무인 경우에는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현재 자살생각 수준인 경우에는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의 쉼터에서 75부(88.2%), 원스톱 지원센터 6부(7.1%), 청소년 지원센터 3부(3.5%), 해바라기 센터 1부(1.2%)로 총 85부의 설문지를 수거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가 39명(45.9%), 20대가 8명(9.4%), 30대가 12명(14.1%), 40대가 19명(22.4%), 50대가 3명(3.5%)이었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3명(3.5%), 초등학교 재학 및 졸업이 13명(15.3%), 중학교 재학 및 졸업이 27명(31.8%),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이 30명(35.3%),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10명(11.8%)으로, 12년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체 85명 중 73명(85.9%)이었다. 주거상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5명(29.4%), 친척이나 친구와 살고 있는 경우가 7명(8.2%),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48명(56.5%), 혼자 살고 있고 있는 경우가 4명(4.7%)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결혼한 적 없음 43명(50.6%), 미혼, 별거, 이혼, 사별 등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살고 있지 않음 32명(37.6%), 결혼이나 동거를 포함하여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가 7명(8.2%)이었다.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85명 중 39명(45.9%)이었다. 이 중 9명(10.6%)은 자살 생각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살 생각을 보고한 39명 중 가장 최근에 자살 생각을 해 본 것이 지난 일주일 이내인 경우가

6명(15.4%), 최근 한 달 이내인 경우가 4명(10.3%), 1-3개월 이전은 7명(17.9%), 4-6개월 이전은 5명(10.3%), 6-12개월 이전은 2명(5.1%), 1년 이상 전에 라고 응답한 사람은 10명(25.6%)으로 나타났고, 6명(15.4%)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자살 생각이 있는 집단의 평균연령은 25.7세($SD=12.4$)였고, 자살 생각이 없는 집단의 평균연령은 29.3세($SD=13.7$)로 두 집단 간 평균연령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21$, n.s.).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연령($\chi^2=5.73$, $df=4$, n.s.), 성($\chi^2=.36$, $df=4$, n.s.), 교육 수준($\chi^2=3.63$, $df=5$, n.s.), 주거 상태($\chi^2=5.37$, $df=5$, n.s.), 결혼 상태($\chi^2=8.41$, $df=5$, n.s.)의 분포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사건의 유형과 경험 빈도

본 연구 대상자들이 보고한 외상사건 유형에 따른 경험 빈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 연구 참여자 중 외상사건 유형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26(30.6%)명을 제외한 59명의 자료만을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가족 혹은 아는 사람으로 부터 당한 성과 관련되지 않은 폭행(45.8%)이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아는 사람으로 부터 당한 성폭행(25.4%), 18세 이전에 5살 이상 연상인 사람에 의한 성적인 접촉(23.7%), 낯선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13.6%), 심한사고 화재 혹은 폭발(16.9%), 낯선 사람으로 부터 당한 성과 관련되지 않은 폭행(16.9%), 자연재해(15.3%), 낯선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13.6%) 기타 외상사건(13.6%), 감금(3.4%), 고문(1.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참여자 중 외상사건의 횟수를 보고하지 않은 26

표 1. 전체 피험자와 평생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기술 통계치

	전체 (N=85)		자살생각 있음 (N= 39)		자살생각 없음 (N= 46)		X ²	p
	N	%	N	%	N	%		
성별							.36	.55
여자	59	69.4	26	66.7	33	73.3		
남자	23	27.1	12	33.3	11	26.7		
나이							5.73	.22
10대(10세~19세)	39	45.9	21	56.8	18	40.9		
20대(20세~29세)	8	9.4	3	8.1	5	11.4		
30대(30세~39세)	12	14.1	7	18.9	5	11.4		
40대(40세~49세)	19	22.4	5	13.5	14	31.8		
50대(50세~59세)	3	3.5	1	2.7	2	4.5		
교육수준							3.63	.61
무학	3	3.5	1	2.6	2	4.4		
초등학교 재학 및 졸업	13	15.3	9	23.7	4	9.0		
중학교 재학 및 졸업	27	31.8	12	31.6	15	33.3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30	35.3	12	31.6	18	40		
대학 재학 및 졸업	10	11.8	4	10.5	6	13.3		
주거상태							5.37	.37
가족과 살고 있음	25	29.4	11	28.9	14	30.5		
친척이나 친구와 살고 있음	7	8.2	5	13.2	2	4.3		
쉽터 거주	48	56.5	19	50	29	63.1		
혼자 살고 있음	4	4.7	3	7.9	1	2.2		
결혼상태							8.41	.14
결혼한 적 없음	43	50.6	23	60.5	20	45.5		
배우자와 살고 있지 않음(별거, 이혼, 사별 포함)	32	37.6	13	34.2	19	43.2		
배우자와 살고 있음	7	8.2	2	5.3	5	11.3		
자료의 출처								
쉽터	75	88.2	33	84.6	42	91.3		
원스탑 지원센터	6	7.1	5	12.8	1	2.2		
청소년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4	4.7	1	2.6	3	6.5		

주. 자살 생각 있음과 자살 생각 없음은 평생 한번이라도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집단을 의미한다.

표 2. 외상사건 유형별 경험빈도와 중복 외상 여부

외상사건 유형	경험 빈도	%
심한 사고 화재 혹은 폭발	10	16.9
자연재해	9	15.3
가족 혹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성과 관련되지 않은 폭행	27	45.8
낯선 사람으로부터 당한 성과 관련되지 않은 폭행	10	16.9
가족이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성폭행	15	25.4
낯선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	8	13.6
전투 혹은 전쟁	0	0
18세 이전에 5살 이상 연상인 사람에 의한 성적인 접촉	14	23.7
감금	2	3.4
고문	1	1.7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6	10.2
기타 외상 사건(오토바이에 치임, 친척의 자살 등)	8	13.6
단일외상	32	54.2
중복외상	27	45.8

(30.6%)명을 제외하고 본 질문에 응답한 참여자 중 단일 외상 경험자는 32명(54.2%), 중복 외상 경험자는 27명(45.8%)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

주요 측정 변인들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짐이 되는 느낌($r=.28, p<.05$), 부정적 긴급성($r=.25, p<.05$), 파국화($r=.23, p<.05$) 순으로 평생 자살생각 유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현재 자살생각 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짐이 되는 느낌($r=.51, p<.01$), 파국화($r=.33, p<.01$), 좌절된 소속감($r=.27, p<.05$), 부정적 긴급성($r=.26, p<.05$) 순이었다. 결과를 표 3에 제시

하였다.

대인관계변인, 인지적 정서조절, 충동성과 자살생각의 관계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지의 유무를 종속변인으로 각각의 예측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8개의 단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대인관계-심리학적 변인 중 짐이 되는 느낌($OR=1.07, 95\% CI=1.01-1.13, p<.05$)은 평생 자살생각 유무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상과는 달리 좌절된 소속감($OR=1.02, 95\% CI=0.98-1.06, p<.05$)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 요인의 파국화

표 3. 측정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자살생각과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 평생 자살생각	1.00									
2. 현재 자살생각	.58**	1.00								
3. 좌절된 소속감	.12	.27*	1.00							
4. 짐이 되는 느낌	.28*	.51**	.45**	1.00						
5. 반추	.21	.18	.03	.08	1.00					
6. 파국화	.23*	.33**	.17	.36**	.52**	1.00				
7. 자기비난	.10	.12	-.03	.13	.22	.09	1.00			
8. 타인비난	-.02	.05	-.09	.01	.34**	.33**	-.24*	1.00		
9. 미리 숙고하기	-.20	-.13	-.29*	-.26*	.04	-.11	.17	-.15	1.00	
10. 부정적 긴급성	.25*	.26*	.14	.43**	.32**	.39**	.15	.16	-.42**	1.00
평균	-	-	19.81	7.96	5.52	5.10	5.16	5.10	3.29	2.73
표준편차	-	-	12.18	9.01	1.64	2.05	1.83	2.21	0.63	0.71

주. * $p < .05$, ** $p < .01$

표 4. 평생 자살 생각 유무에 대한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예측 변인	OR	95% CI
대인관계-심리학적 요인		
좌절된 소속감	1.02	0.98-1.06
짐이 되는 느낌	1.07*	1.01-1.13
인지적 정서조절		
반추	1.31	0.99-1.73
파국화	1.27*	1.02-1.59
자기비난	1.12	0.88-1.43
타인비난	0.99	0.81-1.20
충동성		
미리 숙고하기	0.51	0.24-1.08
부정적 긴급성	2.12*	1.08-4.14

주.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 $p < .05$, ** $p < .01$

(OR=1.27, 95% CI=1.02-1.59, $p < .05$)와 충동성 요인의 부정적 긴급성(OR=2.12, 95% CI= 1.08-4.14, $p < .05$)이 평생 자살생각 유무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으나 반추(OR=1.31, 95% CI=0.99-1.73, $p = .059$) 점수가 높을수록, 미리 숙고하기(OR=0.51, 95% CI=0.24-1.08, $p = .078$) 점수가 낮을수록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k 우울 척도의 9번 문항으로 측정된 현재 자살생각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각각의 예측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8개의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인관계-심리학적 변인인 좌절된 소속감($F(1, 75)=5.93$, $p < .01$)과 짐이 되는 느낌($F(1, 77)=27.11$, $p < .001$), 인지적 정서 조절 방략 중

표 5. 현재 자살생각 수준에 대한 단순회귀 분석결과

예측변인	β	t	R ²	F
대인관계-심리학적 요인				
좌절된 소속감	.27	2.44*	.07	5.93*
짐이 되는 느낌	.51	5.21***	.26	27.11***
인지적 정서조절				
반추	.18	1.62	.03	2.63
파국화	.33	3.20**	.11	10.26**
자기비난	.12	1.11	.02	1.24
타인비난	.05	.48	.00	.23
충동성				
미리 숙고하기	-.13	-1.17	.02	1.37
부정적 긴급성	.26	2.37*	.07	5.62*

주. * $p < .01$ ** $p < .05$, *** $p < .001$

파국화($F(1, 82)=10.26, p < .05$)와 충동성 요인 중 부정적 긴급성($F(1, 80)=5.62, p < .01$)이 현재 자살 생각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과 같은 대인관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관련기관에서 보호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외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과 같은 대인관계-심리학적 변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정서조절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인관계 외상경험자 85명 중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9명이었다. 이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45.9%에 이르는 높은 수치로서, 국내 역학조사 연구(Jeon et al., 2010)에서 나타난 국내 일반인의 평생 자살 생각률(15.2%)의 3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는 Molnar, Berkman과 Buka(2001)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 연구결과와도 상당히 유사한 결과이다. Molnar 등(2001)은 본 연구와 Jeon 등(2010)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사용하여 자살 생각률을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미국 일반인의 16.7%,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한 미국인 중 48.2%가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과 신체 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대인관계 외상사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외상사건 경험집단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3배 정도에 이른다는 점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였던 대인관계 외상사건 경험자들 내에서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살생각을 보고한 집단과 보고하지 않은 집단 간에 성별, 나이, 교육기간, 주거 상태나 결혼 상태 모두에서 유의한 집단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거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Jeon 등(2010)의 역학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유의하게 높은 자살생각률을 보고한 결과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대인관계 외상 사건을 경험한 경우에는 자살생각 위험에 있어 남녀의 차는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외상 경험자 중 25%는 지난 달에 자살생각을 하였다고 보고하였고, 50% 이상이 지난 3개월 이내에 자살생각을 하였다고 보고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상경험 후 기관에서 보호 또는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자살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시사된다.

자살의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유대감의 상실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짐이 되는 느낌은 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의 현재 자살생각 수준의 강력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자살생각 과거력 또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좌절된 소속감은 현재 자살생각 수준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 자살생각 과거력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못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다소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고려사항은 짐이 되는 느낌이나 좌절된 소속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될 수 있는 변인이므로, 현재의 심리적 상태와 과거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민호(2010)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과 직접 관련이 있기보다는 절망감과 같은 제 3의 매개변인을 통해 관계할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는, ‘파국화’만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인관계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보호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외상경험자들의 경우 경험한 사건에 대해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인지적 사고 양상을 보이는 경우 자살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겪었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이 얼마나 끔찍했었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살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추의 경우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05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관계의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반추변인의 내적 일치도 수준이 다소 낮았던 점도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충동성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충동성을 미리 숙고하는 경향성의 부족과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 즉 부정적 긴급성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부정적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하기 전에 미리 숙고하는 경향성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p=.078$) 다소의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의 자살생각과 인지적 정서조절, 충동성의 관계는 현재의 자살 생각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경우와 과거력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상경험과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 사건 후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는 인지적, 행동적 결함이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 결과 해석 시 고려해야 할 몇몇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전체 피험자 수가 다소 적었다는 점이다. 쉼터 등의 보호 기관에 있는 외상 경험자들을 연구하기에는 이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수의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10대 청소년에서부터 40-50대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성별이 상당히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의성이 없게 나타났거나 경향성만을 보였던 변인들에 대한 결론은 조심스럽게 보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변인들이 사례수가 증가한다면 유의미하게 나올 가능성과 일부 연령층에만 유의한 위험 변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상사건의 경험시기와 현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최근 외상 사건 경험 시기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 경험시기를 고려한 중단연구나 경험시기를 후향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접근성이 어려운 성폭력, 가정폭력 외상경험

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들을 폭넓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좀 더 많은 수의 외상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하다면 심층적인 임상면접을 통한 정신과적 장애의 진단과 증상이 심리학적 변인들과 함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기관에서 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자살위험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축, 대인관계 외상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사건 후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행동적 기술의 향양이 자살예방에 중요한 심리사회적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김명식, 이임순, 이창선 (2007). 한국판 BDI-II의 타당화 연구 I: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997-1014.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보라, 권호인, 권정혜 (2010). 한국판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147-167.

- 보건복지부 (2012). 2011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 조사결과 보고서. 보건복지부 정신 건강정책과.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여성가족부.
- 조민호 (2010).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통해서 본 한국군의 자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하정미, 설연옥, 좌문경 (2010).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6(4), 223-24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09-27.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fifi, T. O., Ennas, M. W., Cox, B. J., Asmundson, G. J. G, Stein, M. B., & Sareen, J. (2008).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of psychiatric disorders and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associated with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 946-952.
- Allen, J. (1995). *Coping with trauma: A guide to self-understanding*.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Allen, J.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4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Anestis, M. D., & Joiner, T. E. (2011). Examining the role of emotion in suicidality: Negative urgency as an amplifi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nd lifetime number of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9, 261-269.
- Baumeister, R. S.,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rown, G. K., Beck, A. T., Steer, R., & Grisham, J. R. (2000). Risk factors for suicide in psychiatric outpatients: A 20-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371-377.
- Chapman, A. L., Gratz, K. L., & Brown, M. Z. (2006). Solving the puzzle of deliberate self-harm: The experiential avoidance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371-394.
- Cukrowicz, K. C., Cheavens, J. S., Van Orden, K. A., Ragain, R. M., & Cook, R. L. (2011).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suicide ideation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6, 331-338.
- Dube, S. R., Anda, R. F., Felitti, V. J., Croft, J. B., Edwards, V. J., & Giles, W. H. (2001). Growing up with parental alcohol abuse: Exposure to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Child Abuse & Neglect*, 25, 1627-1640.
- Foa, E. B., Cashman, L., Jaycox, L., & Perry, K. (1997). Th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sychological*

- Assessment*, 9, 445-451.
- Foster, T. (2011). Adverse life events proximal to adult suicide: A synthesis of findings from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5, 1-15.
- Friedman, M. J., Resick, P. A., & Keane, T. M. (2007). PTSD: Twenty-five years of progress and challenges. In M. J. Friedman.(Eds.), *Handbook of PTSD: Science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Garnefski, N., & Kraaij, V. (2006).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development of a short 18-item version (CERQ-sh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045-1053.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77-391.
- Jeon, H. J., Lee, J.-Y., Lee, Y. M., Hong, J. P., Won, S.-H., Cho, S.-J., Kim, J.-Y., Chang, S. M., Lee, D., Lee, H. W., & Cho, M. J. (2011). Lifetim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plan, and single and multiple attempts in a Korean nationwide study.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ease*, 198, 643-646.
- Joiner, T. E.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 Joiner, T. E., Van Orden, K. A., Witte, T. K., Selby, E. A., Ribeiro, J. D., Lewis, R., & Rudd, D. M. (2009). Main p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Empirical tests in two samples of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 634-646.
- Kang, H. K., & Bullman, T. A. (2008). Risk of suicide among US veterans after returning from the Iraq or Afghanistan war zon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00, 652-653.
- Kessler, R. C., Borges, G., & Walters, E. E. (1999).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attemp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617-626.
- Krug, E. G., Kresnow, M. J., Peddicord, J. P., Dahlberg, L. L., Powell, K. E., Crosby, A. E., & Anest, J. L. (1998). Suicide after natural disaster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8, 373-378.
- Martin, G., Bergen, H. A., Richardson, A. S., Roeger, L., & Allison, S. (2004). Sexual abuse and suicidality: gender differences in a large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8, 491-503.
- Miller, M., Barber, C., Azrael, D., Calle, E. E., Lawler, E., & Mukamal, K. J. (2009). Suicide among US veterans: A prospective study of 500,000 middle-aged and elderly me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0, 494-500.
- Molnar, B. E., Berkman, L. F., & Buka, S. L. (2001). Psychopathology, childhood sexual abuse and other childhood adversities: Relative links to subsequent suicidal behaviour in the US. *Psychological Medicine*, 31, 965-977.

- Nock, M. K., Borges, G., Bromet, E. J., Cha, C. B., Kessler, R. C., & Lee, S. (2008).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Epidemiologic Reviews*, 30, 133-154.
- Prinstein, M. J., Nock, M. K., Simon, V., Aikins, J. W., Cheah, C. S. L., & Spirito, A. (2008). Longitudin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following inpatient hospitaliz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 92-103.
- Shneidman, E. S. (1998). Perspective on suicidology: Further reflections on suicide and psychach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8, 245-250.
- Slee, N., Spinhoven, P., Garnefski, N., & Arensman, E. (2008). Emotion regulation as mediator of treatment outcome in therapy for deliberate self-harm.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5, 205-216.
- Slee, N., Garnefski, N., Spinhoven, P., & Arensman, E. (2008). The influence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on severity on deliberate self-harm.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 274-286.
- Sorsdahl, K., Stein, D. J., Williams, D. R., & Nock, M. K. (2011). Associations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suicidal behavior in South Africa.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2, 928-933.
- Stein, D. J., Chiu, W. T., Hwang, I., Kessler, R. C., Sampson, N., Alonso, J., Borges, G., Bromet, E., Bruffaerts, R., Girolamo, G., Florescu, S., Gureje, O., He, Y., Kovess-Masfety, V., Levinson, D., Matschinger, H., Mneimneh, Z., Nakamura, Y., Ormel, J., Posada-Villa, J., Sager, R., Scott, K. M., Tomov, T., Viana, M. C., Williams, D. R., & Nock, M. K. (2010).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associations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suicidal behavior: Findings from the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s. *PLOS one*, 5, e10574.
- Van Orden, K. A., Lynam, M. E., Hollar, D., & Joiner, T. E. (2006). Perceived burdensomeness as an indicator of suicidal symptom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 457-467.
-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 Joiner, T. 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 575-600.
- Van Orden, K. A., Witte, T. K., Gordon, K. H., Bender, T. W., & Joiner, T. E. (2008).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 72-83.
- Van Orden, K. A., Cukrowicz, K. C., Witte, T. K., & Joiner, T. E. (2012).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Construct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4, 197-215.
- Wegner, K. E., Smyth, J. M., Crosby, R. D., Wittrock, D., Wonderlich, S. A., & Mitchell, J. E. (2002). An evalu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od and binge eating in the natural environment using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2, 352-361.

- Whiteside, S. P., & Lynam, D. R. (2001). The five factor model and impulsivity: Using a structural model of personality to underst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669-689.
- You, S., Van Orden, K. A., & Conner, K. R. (2011). Social connections and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5, 180-184.

원고접수일 : 2012. 3. 31.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6. 1.
게재결정일 : 2012. 6. 26.

Social Connec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Suicidal Ideation among Individuals with Interpersonal Trauma

Bo-Mi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Eulji University Hospital

Sungeun You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ole of social connec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suicidal ideation among individuals with interpersonal trauma. Based on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Joiner, 2005), we hypothesized that two indices of social connections,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would be associated with current and lifetime suicidal ideation. Further, we hypothesized that cognitive emotion dysregulation and impulsivity would be associated with current and lifetime suicidal ideation.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nd local shelter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physical abuse. A total of eighty-five participants completed a set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current and lifetime suicidal ideation, traumatic events,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cognitive emotion dysregulation, and impulsivity.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burdensomeness, catastrophizing, and negative urgenc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urrent and lifetime history of suicidal ideation. Thwarted belongingness was associated only with current suicidal ideation.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psychosocial intervention to reduce suicide risk among individuals with interpersonal trauma.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traumatic event,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mpulsivity